

태풍 북상 직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폭주

‘타파’ 앞뒤 18~20일 800여건 가입해 평소보다 급증
‘링링’때도 비슷… 일부 농가 뒤늦게 가입하려다 낭패

9월에만 ‘링링’과 ‘타파’ 등 2개의 태풍이 제주에 직접영향을 미친 가운데, 기상청의 태풍 북상 소식 직전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예상진로가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된 직후 농작물피해를 예상해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건데, 태풍 근접 시점에서는 보험가입이 일시 중단되면서 일부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 총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 오후 2시 사이에 도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월동무 665건(5624농지)·2410ha, 시설하우스 164건·555ha로 집계됐다. 18일 기상청이 전날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24시간 내 태풍으로 발달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 가능성을 예보하면서 농가의 보험 가입 급증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달 16~17일 이틀간 보험가입이 월동무 8건(19농지)·15ha, 시

설하우스 10건·6ha였음을 감안하면 태풍의 영향을 받기 직전 보험 가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달 7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난 태풍 ‘링링’때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중단 직전인 2~3일 이틀간 보험가입이 78건(260농지)·118ha, 무 62건(263농지)·208ha, 시설하우스가 296건·113ha로 집계됐다.

이처럼 태풍 북상소식을 접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태풍 근접 시점에는 보험가입이 일시 중단된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 월동무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

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에 근거한 것이다. 보험가입 일시중지 시점은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이 협의해 전국 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협측으로 통보하는데 태풍 타파 북상때 중지 시점은 20일 오후 2시, 링링은 3일 오후 6시였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태풍 근접 시점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대부분 농가에선 이같은 사실을 알고 태풍이 제주부근 해상으로 북상한다는 예보가 나오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대왕자바리 치어 생산 성공 “광어 대체 품종 다변화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문관)은 지난 8월 대왕자바리 인공수정란 생산에 이어 치어 생산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왕자바리 치어 생산에는 종자생산 기술 축적이 이뤄진 자바리(다급바리)의 생산기술이 이용됐다. 특히 부화 초기 기형율 저감을 위한 시험도 병행해 안정적인 치어 생산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연구원은 교잡(자바리×대왕바리)에 의한 인공수정란 생산에 이어 안정적인 치어 생산을 통해 광어 위주의 양식 산업을 대체할 품종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왕자바리는 고수온에도 강하고 성장이 빨라 양식 경제성이 높은 어종으로 판단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이번 생산된 치어를 이용해 출하 크기인 1~2kg급까지의 성장시험과 사육형태별(유수식, 순환여과식) 양식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제주형 양식기술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급년도 인공수정란과 치어 생산 기술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대량생산 기술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정란과 치어를 민간 양식가에 분양해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완전양식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성훈기자 sycho@ihalla.com



태풍 피해현장 찾은 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오전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한 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 향토음식 명인·장인 뽑는다는데…

도, 지정 계획 공고
10년째 명인 2명뿐

제주 향토음식의 전문가는 많은데 ‘최고봉’으로 인정된 사람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고 전문가 지정을 남발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향토음식 명인 및 장인 지정 계획을 23일 공고했다. 신청자격에 있어 ‘명인’은 향토음식관련분야에 종합적 최고수준의

기능을, ‘장인’은 관련분야에 분야별로 최고수준의 기능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그동안 명인에 대해서만 신청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장인’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장인 신청분야는 7개 대표향토음식(갈치국, 성게국, 옥돔구이, 자리물회, 한치물회, 고기국수, 빻떡)과 맛의 방주 등재품목(18개)을 사용한 향토음식이다.

제주향토음식 명인 사업은 제주도가 제주향토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향토음식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까다롭고 높은 기준과 한정된 인력풀로 인해 ‘명인’지정이 쉽지 않아 제주 향토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기준 완화의 목소리가 있었다. 2010년 제1호 김지순씨에 이어 지난해 제2호 고정순씨 등 현재까지 선정된 명인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가 기준 확대와 더불어 명인 등의 지정 남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조성훈기자

2019 제주愛 빠지다 ⑭ 문화예술공간 ‘아이’



지난 4월 문화예술공간 ‘아이’ 개관 기념 공연. 내달 선보일 ‘한라산’ 역시 무대와 객석 구분없이 아이처럼 모두가 공연자가 되길 바라며 준비되고 있다. 사진=‘아이’ 제공

“아이 같은 예술성 이곳에서 발견을”

무용가·안무가 궤고은 대표
너른품 제주서 ‘모두의 예술’
내달 협업공연 ‘한라산’ 준비

삶과 문명이 바라다보이는 집이었다. 그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 뒤 그 바다에 눈길을 두곤 했다. 어느 날은 거짓말처럼 서귀포 앞 바다에 뛰노는 7마리 돌고래를 목격했다. 바다 맞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을 담았다는 한라산이 다가왔다. 하늘의 구름은 또 어떤가. 제주섬에 붙어대는 바람이 구름의 모양을 만들고 때로는 얼굴 등 갖가지 형상을 그려내는 순간은 그대로 신화의 세계인 듯 했다.

2년 전 서귀포에 등지를 튼 무용가이자 안무가 궤고은씨, 서울 국제공연예술제 서울댄스컬렉션 수상자로 서귀포시 강정동(이여도로 735번지 2층)에서 문화예술공간 아이(aie)를 운영하고 있는 그가 ‘한라산’이란 이름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라산이라는 ‘큰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협업

과 음악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사진 스튜디오로 썼던 공간을 빌려 조성된 ‘아이’는 ‘art in everyone’의 영문 약자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을 품었다. “예술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살 아숨쉬는 예술성을 발견하고 아이와 어른 모두가 화합하며 예술로 소통하는 장”을 꿈꾸며 세워졌다. 무엇보다 딸을 낳아 키우는

동안 아이는 그 자체로 예술가라는 걸 ‘발견’했다는 궤 대표에게 ‘아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4월 개관 기념 공연에 이어 10월 3일 오후 5시 선보이는 ‘아이’의 두번째 작품인 ‘한라산’은 궤 대표의 안무 노트가 있지만 가시리에 거주하는 무용가, 워킹홀리데이로 제주를 찾은 청년, 제주대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는 문화기획자가 각자의 언어로 공동 창작하고 출연한다. 소규모 아카시아밴드를 이끄는 궤 대표의 남편은 음악을 맡았다.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술가와 시민이 같이 어울리는 공연이 되었으면 해요. 그 날은 관객들도 공연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조용히 관람하라고 타이르는 공연이 아닙니다. 지난 개관 행사 때도 아이들이 무대로 나와 노는데 그것이 마치 공연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궤 대표는 이즈음 예술놀이 워크숍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제주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아이’ 주축로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력이 안되지만 공간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워크숍을 꾸려왔다. 그는 ‘아이’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여러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서귀포시 도심권

인 신시가지 인근에 들어선 만큼 도시형 마을 공동체를 가꾸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4·3평화재단 직원(연구직, 기간제) 채용 공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제주4·3평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2명

구분	직급	인원	주요업무
계		2	
연구직	연구직 5급	1	4·3추가진상조사 4·3관련 조사·연구 - 연구 운영 및 출판 관리 4·3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기획 업무 등
기간제	대체인력 (공무직)	1	- 어린이 4·3체험학습 진행 및 안전관리 - 체험 예약접수 및 방문객 응대 4·3평화재단 사무처 업무 등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자격

-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학력(연구직 제외)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만60세 까지(재단 정년 적용)
- 거주지 요건
 - 연구직 : 지역제한 없음
 - 기간제 : 채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둔적이 있거나, 두고 있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직렬	직급	자격기준
연구직	연구직 5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및 활동에 종사한 자
기간제	대체인력 (공무직)	○ 자격기준 없음

3. 인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제주4·3평화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9. 24(화) ~ 2019. 10. 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접수
 - ※ 온라인 및 우편접수는 10월 4일(금)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온라인 접수 : 이메일(jeju43@jeju43peace.or.kr) 로 접수 (메일 제목에 응시직렬(연구직, 기간제 명시))
 - 우편접수처 :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총무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인사담당자 앞 우633313

4. 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선발인원 :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발표 : 제주4·3평화재단홈페이지 공고('19. 10. 8(화))
- 2차 시험 : 면접시험('19. 10. 11(금))
 - 공통 평가항목 : 전문성·창의력·의사발표 능력·인성과 품성·우대사항 등
 - 연구직 : PT발표(직무수행계획서 중심 10분 이내) 및 영어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공고('19. 10. 11(금))

5. 합격자 대우

- 보수 및 복무
 - 보수 : 제주4·3평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 연구직 5급 :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 기간제(대체인력)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공무직 A등급 적용
 - 복무 : 제주4·3평화재단 복무규정 적용
 - 기간제(대체인력) 근로기간 : 임용일로부터 ~ '20. 12. 29

※ 상기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된 세부사항(결격사유, 우대사항, 제출서류, 지원시 유의사항 등)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의 해당 채용공고를 참조 바랍니다.

2020년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과제 공모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 해결과 기업체 에코기술 개발 등 지역특화기술개발을 목적으로 2002.3.4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6호로 지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 우리센터에서는 제주지역의 환경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2020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 분야

공모분야	주요 내용	비고
환경정책연구	· 제주지역의 환경정책수립에 기여,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연구과제	(단, 자체 조제 재정 등 연구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과제)
환경조사업	· 제주지역의 환경현안문제와 부합되는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기반 마련 및 관련 자료 수집	
환경기술 개발연구	· 제주지역 환경개선(환경오염 예방·저감)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 제주지역 내 환경현안 반영 및 환경오염 물질저감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적용 기술개발	(단, 특허출원·등록, 논문 등 연구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과제)
산학협력연구	· 참여기업의 연구비 일부(한금 30%이상)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 대상자 - 행정기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산업체, 시민 등

■ 접수(공모 기간) - 2019. 09. 16(월) ~ 2019. 10. 04(금) (19일)

■ 접수 방법

- ※ 센터 홈페이지에 첨부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E-mail, 우편 신청[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후 센터로 확인 전화연락 필수, hwp로 작성/ 파일명은 2020 과제제안서(제안자 소속 및 이름)로 함

■ 과제제안 시 유의사항

- 센터 연구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등 규정)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기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름
- 환경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련 과제 및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과제는 중복 제안 불가 ('98~'19년도 전국센터 연구과제 목록(센터 홈페이지 참조)
- 연구비는 2020년도 총 예산 및 환경부 편성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수/과제별연구비/연구기간은 도 및 선정 절차에 따른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외부기관에서 연구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 연구과제 선정시 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gecc.or.kr) 과제공모 공지사항 참조
- 과제제안서 서식 다운 ·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목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 주소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102 제주대학교 통변역대학원 1층 101호
- 전화 : 064-754-2411 · 담당(연구지원팀장) E-mail : tange1987@naver.com

2019. 09. 16.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조은일